

## 특집을 내면서



1957년 Sputnik 1호가 발사된 이래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은 자국의 이익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위성통신 및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착수하여 통신방송, 원격탐사, 군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위성을 제작하여 발사하였고, 현재 우주 궤도 내에는 약 9000기의 위성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9년에 4개의 위성을 발사 운용할 계획이므로 '99년을 “인공 위성의 해”라 칭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발사될 위성은 데이콤 오라이온 위성으로 데이콤 오라이온 위성은 미국 휴즈 사가 제작하여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어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위성은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위성센터가 주관하여 개발한 우리별 3호로 5월중에 인도 PSLV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위성은 오는 8월 남미 기아나 쿠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 3호 위성입니다. 무궁화 3호 위성은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 지역까지 방송통신 서비스가 가능하여 상업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위성은 오는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저궤도 원격탐사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는 하루에 14번씩 지구를 선회하며 사진을 찍어 한반도 정밀 전자지도를 제작하는 한편, 해양상태 감시 및 각종 우주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국내위성 발사 계획에 맞추어 이번 호에서는 국내 위성 발사준비 상황, 위성부품의 국산화 계획 등을 위주로 “국내 위성사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집호를 통하여 조명해본 국내 위성사업 전망과 육성방안, 국내 위성 발사 계획, 그리고 위성부품의 국산화 계획 등 통신, 전자, 우주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여 우리나라의 위성통신/우주산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핵심 매개체로서 21세기 정보화 사회 구현, 고정밀 지도 제작 등으로 국가 기간 인프라 구축 및 홍수 태풍 등의 재해를 신속히 예측하여 국가 재앙을 최소화하는 등 향후 국가 발전 및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특집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고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특집이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통우연 편집기자, 편집담당, 그리고 인쇄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집 위원장    은    증    원